

신학기 자녀 선물로 제격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때 가입하는 보험이 있다. 바로 어린이보험이다.

요즘 인기가 많은 어린이보험 상품으로 동양생명의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자유롭게 설계해 자녀에게 맞춤형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 보험은 보장 내용과 금액이 확정된 기존 상품과 달리 가입자가 최대 25개의 세분된 특약 급부를 활용해 원하는 보험료 수준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피보험자 나이에 따라 1종(태아형)과 2종(어린이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1종(태아형)은 출산 전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암·소액암·입원을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2종(어린이형)은 재해장해를 보장한다.

1종에 가입하고 암 또는 소액암으로 진단될 경우, 1천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한다.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하는 경우 1회당 120일 한도 내에서 첫날부터 매일 3만원의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2종은 재해로 인해 장애 상태가 될 경우, 1천만원에 해당 장애 지급률을 곱해 산출된 금액으로 보장한다.

최대 25개의 다양한 특약을 통해 장애, 암 진단비, 뇌혈관·심혈관 질환, 중증 질환, 암 치료비, 입원·수술, 응급재해 등의 주요 담보를 하나의 보험으로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무)꿈나무의료보장특약^{FF}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수술할 경우 해당 질병의 치료비 수준에 맞는 입원·수술 급여금을 지급하고 액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인 상품이다. 피보험자가 질병분류표에서 정한 1~5종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을 경우 1회당 최대 300만원의 수술비를 지급한다. 단, 2종(어린이형) 가입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수술받는 경우 수술비는 50%만 보장한다. 1~6종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면 120일 한도 내에서 3일 초과 1일당 최대 5만원의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신체 부위별 장애 지급률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은 1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과 2형(순수보장형)으로 구성됐다. 1형은 2형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지만, 보험료 납입 기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0세부터 최대 15세까지 가능하며, 보험료 인상 없이 주계약과 특약 모두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50% 이상 장애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은 맞춤형 상품설계를 통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보험 가입도 좋은 선물"이라고 말했다. 

